

## 기독교 세례

**핵심 구절: “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 
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 
세례를 베풀고”  
마태복음 28:19**

**선별된 성경 구절:  
마태복음 3:13-17; 28:18-20**

기독교 세례는 믿음과 제자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수단이다.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시 본을 따르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헌신을 상징한다. 이러한 증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겠다는, 죽기까지의 헌신을 의미한다. 로마서 12:1,2; 요한계시록 2:10

예수님께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, "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셨다"(마태복음 3:16). 그러자 우리 주님은 아담과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생명을 드리러 지상에 오시기 전, 이전에 누리셨던 경험과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완전히

연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(디모데전서 2:5,6).  
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인류를  
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 이 길을  
선택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 
확증으로 하늘에서 음성( )을 내리셨다. "이는 내  
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을 받는 자라" (마태복음  
3:17).

그리스도는 지상 사역에서 죽기까지 신실함을  
입증하신 후 부활하셔서 신성한 본성에 높이  
올리우셨습니다. (빌립보서 2:9,10). 비록 육신으로는  
더 이상 제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지만, 그분은  
계속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 
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가 하늘로  
승천하시기 전, 우리는 그의 작별 인사를 읽습니다:  
"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정하신 산에  
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 
경배하되 어떤 이들은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 
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 
권세가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시니라" 마태복음  
28:16-18

다음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모든 순종하고 신실한  
지체들, 곧 "그의 죽음에 침례를 받은" 자들이 얻을  
위대한 상에 관한 감동적인 약속입니다. (로마서 6:3-

5). "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이마에 그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. 하늘에서 물소리가 우르르 터지는 것 같고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연주자들이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 같았습니다. 그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으니 땅에서 구속받은 십사만 사백 명 외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더라. 이들은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곧 처녀로 있는 자들이라.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느니라.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 중에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니라." 요한계시록 14:1-4

이 시급한 순간이 우리 삶에 새 힘을 불어넣어, 우리 중 한 분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그 원칙들을 감사히 여기고 실천하게 하소서. “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, 달리는 길을 다 달렸으며, 믿음을 지켰노라.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,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.” 디모데후서 4:7,8